

강 신 향

한국어문화 이사장

강신향 한국어문화 이사장은 성균관대 교수와 국어학회 회장을 지낸 국어학계의 원로로서, 『훈민정음』과 『계림유사』 연구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부인인 정양완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함께 학문 외길을 걸으며, 『숲마을에서 배밭골까지』, 『어느 가정의 예의범절』, 『더불어 기쁘게 사는 삶』 등의 책을 펴내 전통적인 부부상의 모범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양완 선생의 부친은 국학의 태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이다.

강신향 이사장은 지난 9월, 40년에 걸쳐 한국어와 한어(漢語)의 음운사 분야를 섭렵하여 한국의 음운사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업적으로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이에도 동인지 『한국어 연구』 발간을 주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신향 한국어문화 이사장을 만나 인생과 학문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 본다.

답변자: **강신향**(한국어문화 이사장)

질문자: **장승욱**(작가)

때: 2008년 11월 13일

곳: 찻집 '엘빈'

장승욱: 먼저 지난 9월에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강신향: 창피하죠. 남들은 오십 대 후반이나 육십 대 초반이면 받는 상을 팔십이 다 돼서 받았으니. 그래도 그동안 해 온 일이 헛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장승욱: 상금(3000만 원)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강신항: 남광우 선생님이 지금 학술상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거기 전 액을 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상을 탔지만 한 번도 상금을 개인 적으로 쓴 일은 없어요. 91년에 받은 위암학술상 상금은 성균관대 박사 과정 학생들 장학금으로 썼고, 2000년 동승학술상 상금은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국어학회 회장에게 쥐 버렸지요. 2004년 용재상 상금도 연세대학교 장학금으로 냈고……. 우리 애들은 뭐라고 하는데, 상금 타서 생활비 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랬지요. 인정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니까.

장승욱: 선생님께서는 1949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셨는데, 국문과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강신항: 원래는 국문과 가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건국 초라 그런지 대개 고등학교 2학년쯤에는 진로에 대해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역사를, 역사 중에서도 초근대사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본에 무엇도 주고 무엇도 줘다 했는데, 근래에는 왜 이렇게 얻어맞기만 하는가,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캐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 원서 쓸 때가 됐는데, 그때 남광우 선생님이 서울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역사는 자네 아니어도 할 사람 많으니까 사학과 말고 국문과를 가는 것이 어떠냐, 특히 국어학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 지우는 걸로 제1지망과 제2지망을 바꿔서 결국 국문과에 갔는데, 1년 동안은 정말 재미없었어요. 국어학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다니다 보니 사명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장승욱: 그러면 2학년 때부터는 재미를 붙이셨다는 얘기가 되나요?

강신항: 솔직히 49년에는 대학 생활을 7개월밖에 못 했어요. 2학년 때는 더 했고, 2학년 올라가서 첫날 강의한 것이 6월 26일이었거든요. 25일은 일요일이고, 26일 오후에 양주동 선생님 강의 듣고 27일부터는 도망 다녔으니까. 겨우 부산 가서는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게 생겨서 다녔는데, 한 학기 강의 내용이 노트 열장이나 될까 말까 했어요. 또 그때 내가 국방부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출석도 거의 못하고 친구들 노트 빌려다가 공부하고 그랬죠. 그때 방종현 선생님이 학장으로 계셨는데, “저 이런 식으로 대학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대학 강의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입학 동기가 스

물한 명이었는데, 이기문 선생, 이기문 선생 부인하고 또 누구 이렇게 셋만 먼저 졸업을 했어요. 나는 국방부 따라 다니느라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보다 몇 년 늦게 졸업했지요.

장승욱: 국방부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강신항: 50년 11월이었는데 군인인지 군속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전사편찬위원회'라는 곳인데, 『역사 앞에서』를 쓰신 김성칠 선생님 덕분에 거기 들어갔어요. 그때 정훈국장이 이선근 선생이었는데, “역사는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복할 수 없다.”고 해서 만든 기관이었어요. 위원장이 이병도 선생, 부위원장님이 동양사 하시던 김상기 선생이었고, 김성칠 선생도 계셨으니까 우리나라 사학계의 거목들이 다 모여 있었죠. 나는 학생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군무원이었죠. 계급장도 없는 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그때는 제발 계급장이라도 붙여 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지요.

장승욱: 그러면 그때 군무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입대를 하셨나요?

강신항: 53년 4월에 공군에 입대를 했는데, 한창 전쟁 때니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간부 후보생으로 갔죠. 그때 같이 훈련받은 사람 중에는 이현재 전 국무총리도 있었죠. 그래서 소위 계급장을 달고 훈련 기간까지 합쳐서 49개월을 복무했어요. 원래는 7년을 복무해야 하는데, 휴전이 되니까 법이 바뀌어서 3년 이상 복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스물여덟 살에 제대를 했죠.

장승욱: 얼마 전에 『훈민정음』을 4개 국어(영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발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선생님께서 현대어 번역을 맡으셨다고 돼 있던데, 그건 언제 작업하신 건가요?

강신항: 지난 86년에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유럽 23개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모여 만든 '재유럽 한국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갔더니 당시 소련에서 온 콘체비치라는 분이 러시아어로 된 『훈민정음』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79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훈민정음』 번역본이에요. 충격을 받았죠. 우리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오는 길로 부랴부랴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87년에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모임에 가져가서 들렸지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장승욱: 『한국어 연구』라는 동인지 성격의 학술지를 2003년부터 내고 계시지요?

강신항: 그저께 막 5집이 나왔습니다. 52년, 4학년 때 일곱 명으로 구성된 클럽이 있었어요. 술을 못 마시는 공통점이 있어서 모여서 공부나 하자고 만든 모임인데, 나하고 이기문, 김완진, 이승욱, 안병희, 정연찬, 그리고 문학 쪽의 김열규 등이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환도 뒤에도 한 10년 동안 모임을 계속했지요. 그 뒤로 97년에, 대개 정년 퇴임을 했을 때인데, 다시 모이자 얘기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문학하는 분들을 더 모시기로 해서 숙명여대 계시던 채훈, 인하대 정기호, 만주어 하시는 성백인, 평론가인 신동욱 선생이 회원이 되었습니다. 내친김에 동인지를 내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좋다. 한번 해 보자 한 거죠. 김열규 선생이 빠져서 열 명이 꾸려 왔는데 재작년에 안병희 선생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홉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한 권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승욱: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연구』에 주로 어떤 내용의 글을 쓰십니까?

강신항: 그동안 해 온 『훈민정음』 연구나 『계림유사』 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1집에는 '정음(正音)'에 대해서 썼죠. '정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한자음이 언제 자리 잡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경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똑같이 한자음을 가져왔는데, 유교 경전은 지배층의 것이었던 반면에 불경은 계급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것이었죠. 불경을 자꾸 외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자음이 굳어진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본 학자들은 우리나라 한자음이 굳어진 게 8세기경이라고 하는데, 나는 4~5세기로 봅니다. 불경이 그때 들어와서 한자음이 굳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욱: 그러면 그때 한자음이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음과 비슷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신항: 왜냐하면 조선 초의 한자음을 지금과 비교하면 구개음화 빼면 변한 게 없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일찍 굳어져서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인 한자음을 쓰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한자음이 끊임없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장승욱: 요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강신항: 참 바빠요. 학술원에 상 탔다고 논문 하나를 내일까지 보내라고 해서 「한국 한자음에 끼친 불경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어제 겨우 끝냈습니다. 물론 완전히 새로 쓴 건 아니고, 전에 여기저기 쓴 것을 모아 새로 정리한 것이지만, 그걸 하느라 어제까지 정신없이 지냈지요.

장승욱: 선생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신 한국어문학회에서는 한자 혼용을 주

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 전용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강신항: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부터 대중잡지에 글을 많이 썼는데, 그건 대중을 위한 거니까 한글로만 썼고, 또 학술잡지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니까 한자를 섞어 쓰고 했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쓰게 되면 쓰는 것인데, 자꾸 획일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쓴다고 애국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말 가운데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살려 써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60년대에는 ‘전망(展望)’한다고 하던 것이, 기자들이 자꾸 ‘바라본다’고 쓰니까, 지금은 ‘바라본다’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것은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문필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꾸 써야 해요. 작품에 많이 써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한자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모순 같지만, 자꾸 우리말을 쓰는 범위를 넓혀 가야 한다고 봅니다. 억지로 할 건 없지만…….

일본어의 경우 지금 외래어가 3분의 2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분석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일본어를 비롯한 외래어가 5퍼센트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반반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 신문은 우리 신문보다 한자어가 더 많아요. 나도 처음에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광복 후부터 한글 전용을 했으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90년대에 북한의 「로동신문」을 자료로 볼 수 있게 돼서 학생들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참 놀랐어요. 의외로 고유어가 적어요.

그리고 잠깐 짤 얘기를 하자면, 요즘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어가 이질화됐으면 남북 회담은 어떻게 하겠어요? ‘상호 간에’를 ‘호상 간에’ 한다든지

‘괜찮아요’를 ‘일없어요’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장승옥: 제가 소설책 같은 데 나오는 토박이말을 모아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작가들 책을 읽어 보면 너무 어휘력이 빈곤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신항: 예를 들어 김유정 소설을 보면 어휘가 정말 풍부해요. 그런데 모 대학의 교수였던 어느 유명한 소설가의 경우 세어 봤더니 어휘가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서양 소설을 읽으면 집에 들어갈 때부터 ‘벽에는 무엇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무엇 무엇이 깔려 있다’는 식으로 묘사가 섬세하잖아요. 우리 소설은 형용사나 부사 어휘 구사가 잘 안 되니까 대충 스토리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풀이하지만, 작가들이 우리 말의 아름다운 형용사, 부사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보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달아서라도 말입니다.

장승옥: 요즘 대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만도 많으시지요?

강신항: 우리 기준으로 재면 안 되죠. 지난번 학술원상 탈 때 혹시 몰라서 써 가지고 간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기회가 없어서 발표는 못 하고 말았지만…….

우선 대학의 기능을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전부 취직률이 얼마인가를 따지면서 직업 보도소처럼 돼 버렸습니다. 연구 중심의 대학과 직업 보도 중심의 대학을 구분해서 순수 학문은 순수 학문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같은 걸 하면 나가서, 대학이라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학문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대학의 강의는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수준을 따라오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나가서 대학은 시민 양성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학칙에는 분명히 ‘대학은 심오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얘기를 해 볼까요. 언젠가 아산시청에서 공무원 500명을 모아 놓고 강연을 하라고 해서 “나는 사교육비라는 게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들 키우는 데 과외나 그런 데 돈을 들인 적이 없어요. 저희끼리 공부했지요. 지금은 학원 안 보내면 전부 낙오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 줘야 해요. 가정교사 밑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발전이 없어요. 나는 내신 성적으로 뽑는 걸 찬성합니다.

내 막내 누이는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화여고를 480명 가운데 480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학기 중간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1등을 했어요. 그동안은 환경이 나빠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서울대에서 하는 식으로 지방 학생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욱: 선생님께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미있는 일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신항: 순전히 재수가 좋았지요. 동창이니까……. 국문과 동기가 스물한 명인데 여학생이 넷이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못생겼는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2년 동안 반대했지요. 그쪽에선 괜찮다고 하는데. 그때 내 누이동생이 불문과에 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고를 했대요. 문과대학에 여학생이 스물여섯 명인데, 오빠가 그중 제일 못생긴 여자랑 연애한다고……. 그래 내가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요.

안사람이 며칠 전(11월 3일)에 위암 장기연상을 탔어요. 늦었지만 학계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잘된 일이죠. 그 사람은 지금도 책상 앞에 열 시간씩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음식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바느질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참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사람이 장인어른께서 순 한문으로 쓰신 『담원문록』을 20년 걸려서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배워서 하고 있는 걸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장하다 싶어요. 내가 늘 시집을 온 건지 장가를 간 건지 모르겠다고 농담을 합니다. 자나 깨나 자기 아버지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결과가 잘 나와서 좋습니다.

장승욱: 위당 선생님은 납북되기 전에 빈 적이 있으신가요?

강신항: 그전에 우연히 두 번 뵈기는 했지요.

장승욱: 결혼은 언제 하셨습니까?

강신항: 56년이었어요. 그때는 대개 스물다섯 살쯤에 했는데 스물일곱에 했으니까 좀 늦었지요. 시골 사람들은 망하더라도 논 200평은 남는데, 서울 사람은 망하니까 완전히 망합니다. 장인어른이 납치당하고 나니까 살 길이 없어서 서울 수복 뒤에 장모님하고 우리 안사람이 회현동에서 담배 장사를 했어요. 6년 동안 점심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안사람이 결혼할 때도 옷 두 벌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아이들 결혼시킬 때 며느릿감한테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옷 두 벌밖에 안 가지고 왔으니까 너희도 그 이상 가져올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들이 뭘 가져왔는지 몰라요. 혼수라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혼수 갖고 싸우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사람됨이 중요하지.

장승옥: 건강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요?

강신항: 비결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너무 많이 잡수셔서 쉰 살 되시던 60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95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60년부터 95년까지 혼자 시골에 사셨는데,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취미라는 게 없어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틈만 나면 시골에 갑니다. 어머니가 콩 따고 있으면, “너희도 따라.” 하시고, 그럼 할 수 없이 옷 벗어 놓고 콩 따야 해요. 학생 때도 7월에 방학을 하면, 이번 방학에는 이런저런 공부를 해야겠다고 상당한 포부를 갖고 시골에 갑니다. 그런데 두 살 위인 삼촌하고 가방 내려놓고 신발 벗어놓고 찬장에 보리밥 있으면 열무김치에 비벼 먹고 그길로 밭에 나가 일하기 시작해서 개학 때까지 하루도 책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학생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름에 땀별 아래서 콩밭을 매다 보면 허물이 세 번 벗어져요. 그렇게 방학이 끝나 학교에 가면 무슨 해수욕을 그렇게 했기에 새까맣게 탔냐고 친구들이 놀려 대지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닌데, 그러는 사이에 근검 절약이 몸에 배었지요. 그리고 그런 습관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옥: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항: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던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어렸을 적 꿈은 문학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 보라고 해서 어학을 하게 됐는데, 아직 그런 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찬 바람만 불면 신춘문에 꿈을 꾸게 되고, 천장에다가 줄거리를 그리기도 많이 그렸지요. 65년에 소설가 이청준 선생을 만났는데, 자기는 소설을 쓸 때, 논문처럼 죽 줄거리를 써놓고 거기 살을 붙인다고 하더라고

요. 나도 그렇게 해 볼까 늘 생각만 하다 말았습니다. 문학과고 싶은 마음을 수필 쓰는 것으로 달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소설도 써서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승옥: 꼭 꿈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신항: 고맙습니다.